



백삼위 한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부활 제7주일(주님 승천 대축일)
제32권 25호(나해) 2012-5-20

[묵사]



<주님 승천 대축일>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씀을 남기신 후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오르십니다.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하늘은
그분께서 떠나오셨던 하느님 오른쪽
저희가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머물게 될
저희들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복음 선포와 수난과 부활을 통해
이 세상에서의 여정을 완성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가심은
그들만의, 그 때만의 주님이 아니라
저희들의, 영원하신 주님이 되시어
모든 이와 늘 함께 계시기 위함입니다.

떠나가심으로 시작된 저희의 새로운 여정
당신께서 명령한 모든 것을 잘 지키고
모든 이들에게도 가르치고 지키게 하여
당신께서 모든 이의 영원한 주님임을
온 세상이 깨달을 수 있을 그 때까지,
그리고 저희 스스로가 천상의 예루살렘
저희의 최종목적지에 도달 할 때까지
증인으로서의 여정은 쉽습니다. -桓-

martinlee0501@hanmail.net

미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310)283-5879
연령회 (장례식 연락처) : (310)720-8240

수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목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금요일	아침 미사	오전 8:30
토요일	성모신심 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 (청년미사)	오전 8:30 오후 7:00
주일	아침 미사 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7:30 오전 9:30 오전 11:00

주간행사표

수요일	면담의 날(신부님, 수녀님) 성경공부(그룹반) 레지오 마리아 예비자 교리반	오후 2:00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목요일	성 시간 (첫목요일) 레지오 마리아 병자영성체(1째주) 성령기도회 울뜨레아(4째주)	저녁 미사후 오전 10:00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금요일	성경공부(그룹반) M.E. Sharing(3째주)	오전 9:30 오후 7:00
토요일	유아세레(작수달 4째토요일) 레지오 마리아 배론 청년모임	오후 6:00 오후 5:30 오후 6:00
주일	병자 영성체 / 레지오 마리아 아도라배 성가대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안나회/양업회, 성모회 자모회/대건회/원서회 • 꾸리아 3째주 - 모임의 날 • 빈첸시오회 • 요셉회 • 제대회 -행사의 날 4째주 - 사목회	오전 중 오전 8:30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1:45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1:00

- ※ 고해성사 : 평일미사, 토요특전미사 15분 전, 주일미사 20분 전
-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 병자영성체 : 사무실로 신청

주임신부 : 이장환 마르띠노 (310)326-4350 Ext.103/106
전교수녀 : 문 밥티스타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신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협회장 : 이재정 사도 요한 (562)403-7345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 요	(연)최금옥 말찌나, 이덕철 루카
특전미사	(생)모우빈 사무엘 & 모헤빈 안젤라, 권세은 아나스타시아
주 일 낮 미사	(연)김풍길 바오로, 이덕철 루카, 이호순 프란체스카, 박영춘 안토니오, 홍숙현 아가다, 이상일 요셉, 이숙자 루피나, 고준희 제임스, 송봉규 요셉 & 송공랑 카타리나, 김덕희 세실리아, 김종환 야고보 (생)이경용 야고보 & 이운조 글라라, 신대철 알베르토, 이귀분 안나, 김영남, 장현모 비비안나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사도행전(Acts of Apostles) 1,1-11

화답송 ○환호 소리 가운데 하느님이 오르신다.
나팔 소리 가운데 주님이 오르신다.



환호소리 가운데 하느님이 오르신다. 나팔소리 가운데 주님이 오르신다.

○모든 민족들아 손뼉을 쳐라. 기뻐 소리치며
하느님께 환호하여라. 주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
경외로우신 분, 온 세상의 위대하신 임금이다.○
○환호 소리 가운데 하느님이 오르신다.
나팔 소리 가운데 주님이 오르신다.
노래하여라, 하느님께 노래하여라.
노래하여라, 우리 임금님께 노래하여라.○
○하느님이 온 누리의 임금이시니, 찬미의 노래
불러 드려라. 하느님이 민족들을 다스리신다.
하느님이 거룩한 여좌에 앉으신다.○

제 2독서 에페소서(Ephesians) 1,17-23

복 음 ○알렐루야.
환호송 ○주님이 말씀하신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복 음 마르코(St. Mark) 16,15-20

영성제송 보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알렐루야.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특전)	아침 미사	낮 미사
미사곡			33-42
입당	172	172	172
봉헌	257	257	264
성체	304	304	279
파견	165	165	165

교회의 삶과 사명 안에서

- 하느님의 말씀에 관하여 -

▶제1부 하느님의 말씀

“한처음에 말씀이 계시었다.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시었는데
말씀은 하느님이셨다.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 (요한 1,1.14)

교회 안의 성경 해석학

이원론과 세속화된 해석학의 위험성

그래서 계시 현장 「하느님의 말씀」에서 밝힌 지침들을 좀 더
주의 깊게 다시 한 번 고찰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경에 대한 접근에서 신앙과 이성

36). 요한 바오로 2세 교황께서 회칙 「신앙과 이성」에서 이에
관하여 썼던 것이, 주석에 대한, 그리고 신학 전체에 대한 주석
의 관계에서 가장 완전한 이해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석자가, 교회 전체와 결합되어 본문
의 총명한 의미에 도달할 수 있게 해 주는 더욱 포괄적인 주해
의 필요성을 무시한 채, 어떤 단 하나의 방법론만을 적용하여
성경의 진리를 해석하려고 하는 데 따르는 위험을 과소 평가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 연구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다
양한 해석학적 접근 방법들이 각기 고유의 철학적 전제들을
깔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서 그것들을 성
경 본문들에 적용하기에 앞서서 조심스러운 평가 작업을 거치
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넓은 전망의 고찰은, 성경에 대한 해석학적 접근은 신
앙과 이성 사이의 올바른 관계 문제와 연관된다는 것을 분명
히 보여줍니다. 실상, 성경에 대한 세속화된 해석학은 하느님
께서 인간의 삶에 들어오시고 인간에게 인간의 말로 말씀하실
수 있으시다는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배제하는 이성애 의하여
이루어집니다.

이 경우, 자신의 이성의 지평을 확장시킬 것을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역사적 분석의 방법들을 사용할 때에는, 인간의 삶
안에서 하느님의 계시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미리부터
배제하는 기준들이 나타날 때에 그 기준들을 따르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 해석 작업의 두 차원의 단일성은 결국
신앙과 이성의 조화를 전제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신앙은 올바른 이성애 적절한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신앙주의에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신앙주의는, 성경에
대해서는 근본주의적 해석을 주장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다
른 한편으로 이성은 성경 안에 들어 있는 역사적 요소들을 연
구하면서 자신의 기준을 넘어서는 모든 것을 선형적으로 거부
하지 않고 그에 대하여 개방되어 있어야 합니다. 강성한 로고
스의 종교는, 진지하게 진리를 찾고 자신의 삶과 역사의 궁극
적인 의미를 추구하는 인간에게 지극히 합리적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계속>

존재양식의 업그레이드(upgrade)

우리는 모든 것이 지금처럼 존재할 것이라 여기며 하루를 살지만, 생각보다 빨리 모든 것이 변할 것입니다.

건강도 젊음도 간데없고, 함께 했던 가족도 흩어질 것이며, 지금 내가 소유한 모든 것도 남의 차지가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모두 사라질 것입니다. 백 년 뒤에 우리 무덤이 남아나 있겠습니까? 또 그 백 년 뒤에 무엇이 남아 있겠습니까? 지금 이 지구상에는 70억이 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무관심하다면 그들이 함께 존재하고 있으나 마나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참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누구에게든가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래전에 우리 곁을 떠나셔서 지금은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이야말로 참으로 존재하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몸과 마음 모두를 바쳐 우리를 사랑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며, 마지막으로 승천하심으로써 우리 모두에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큰 의미를 던지는 존재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시공의 제약을 받던 이천 년 전 나자렛 예수가 당신의 존재양식을 업그레이드(upgrade)하시어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존재하는 분'이 되셨습니다. 그 업그레이드는 치열한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삼십 여년의 인생과 육신을 사랑으로 완전 연소시킨 결과였습니다. 사랑으로 완전 연소된 예수님의 향기는 온 우주에 두루 퍼져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나 그 향기를 호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구상의 한반도, 반 토막 난 작은 땅덩어리 사람들입니다. 그래도 잘 살아 보려고 오늘도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이 갑자기 다가와, 허약한 우리몸, 자기 그림자와 하나 되고, 산산이 부

서져 허공에 날리면 그뿐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잘 살아보려던 그 몸부림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날이 왔을 때 우리의 존재가 새로운 존재양식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우리도 지금 예수님의 길을 따라야 합니다. 살아있는 동안, 주위 사람들에게 무의미한 존재가 아니라 의미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웃에 무관심한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죽음도 그들에게 무관심한 기삿거리에 불과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후손과 이웃에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존재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우리의 인생과 몸뚱이를 모두 태워 그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의 초가 다 연소되어도 기체로서 공기 중에 남아 있듯이, 우리도 사랑으로 살고, 사랑으로 죽으면, 우리가 사랑했던 그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게 될 것입니다.

타고 남은 재가 다시 기름이 되듯이, 보이지 않는 기억 속의 그 사랑은 우리 후손들의 사랑의 행위로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사랑이 인간 되신 사건'이라면, 예수님의 승천은 '인간이 사랑 되신 사건'입니다. 하느님의 사랑에서 태어난 우리의 육신과 인생도 우리의 결단과 치열한 노력이 있다면, 언젠가 다시 사랑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고향인 사랑의 하느님께로 말입니다.

◆고찬근 루카 신부 /

서울대교구 성소국장

이번주 전례봉사가

이번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김은지 릴리안	신덕례 데레사	채승희 에스터
제1독서자	갈유현 미카엘	권오상 바오로	유철희 바오로
제2독서자	곽수진 보나	권순길 체칠리아	유현자 안나
제물봉헌자			P.V. 1반

다음주 전례봉사가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신중철 아브라함	이진향 아네스	정미영 미카엘
제1독서자	이민상 요한	박진수 스테파노	이상철 크리스토퍼
제2독서자	이순자 비비안나	박혜경 레나타	이희경 크리스티나
제물봉헌자			하버/카슨 1,2반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 미사시간에 늦지 말고, 일찍 와서 묵주기도를 바칩시다.

- ◆ 체육대회날(5월20일) 주일미사 시간 변경
 - * 아침미사 : 7시30분 * 낮미사 : 10시(학생미사와 11시미사 통합) * 체육대회 : 11시에 시작합니다.
- ◆ 세례식 : 5월27일 주일 낮 11시 미사중
 - 세례식 전례연습 : 5월23일(수) 저녁미사와 연도후 대부모님들도 함께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례를 준비하는 주일학교 어린이와 대부모님도 함께 참석해주시오.)

- ◆ 연길 기술학교 복방 선교모금 감사합니다.
한국천주교회와 살레시오 수도회가 운영하는 연길 기술학교 조선족 돕기 선교모금에 따뜻한 정을 보여주신 백삼위 성당 교우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7,600를 후원해주셨습니다. 16명의 신부, 수사, 수녀 및 봉사자들이 매일 여러 후원자를 위해 기도와 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 권선호 헨리코 신부 -

- ◆ 제9회 백삼위 한마당 가족 체육대회
 - 일시 : 오늘 주일(20일) 오전 11시~오후 5시, 잔디밭
 - 대상 : 구역별 전 신자
 - 청팀 : 토런스 동, 서, 북 구역
 - 백팀 : 토런스 남, 하버/카슨, PV 구역
 - 경품 : 김치냉장고(1등), TV(2등), 아이패드 및 식사원/가방 등(3등), 우승팀(가족당 쌀2포), 준우승(가족당쌀1포)
 - 경품추첨대상 : 추첨 진행 중 참석자로 제한,
(추첨권은 오늘 배포)
 - 문의 : 김용 스테파노 체육분과장 ☎(310)926-2248

- ◆ 요셉회 5월모임 변경
 - 일시 : 체육대회 관계로 임시 변경
27일(주일) 낮미사 후, 회의실
 - 문의 : 신중철 아브라함 요셉회장 ☎(310)936-9202

- ◆ 본당건물 Termite 제거작업 완료
본당 건물 전체에 터마이트 제거작업(+카펫클리닝)을 끝냈습니다. 이 기간(5월14일~18일)중 성당을 사용하지 못하는 불편을 겪었으나 교우들의 협조로 잘 마무리 되었습니다.

다. 성전을 비롯하여 1,2층 카펫을 클리닝 했으니 깨끗이 사용합니다.

- ◆ 고등부 견진성사 일정
 - 일시 : 5월26일(토) 오전 10시
 - Reflection(성찰의 시간) : 5월25일(금) 오후 7시
 - 장소 : 성 마가렛 매리 본당
 - 문의 : 빈센트 신 견진담당 교사 ☎(424)903-6637

- ◆ 어린이 복사단 여름방학중 스케줄 제출
 - 대상 : 주일학교 복사단 학부모
 - 내용 : 여름방학 중 자녀 일정에 따라 스케줄 조정
 - 제출 : 본당 수녀님,
황선홍 그레고리오 ☎(424)903-6637

- ◆ 남가주 M.E. 제69차 첫 주말강습 신청
 - 일시 : 6월15일(금)~17일(주일)
 - 장소 : Poverello of Assisi 피정센터(샌퍼난도밸리)
 - 신청 : 본당 ME 대표부부 정동호 하삼바오로/병옥 올리아 ☎(310)780-9055

- ◆ 2012 FIAT장학금 신청 및 봉사인정 프로그램 안내
FIAT 재단은 매년 본당 커뮤니티를 위해 적극적이고 성실한 봉사를 보여준 북미주의 한인카톨릭 학생(12학년~대학원생)의 학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최소 \$500이상 총 \$20,000의 장학금이 수여됩니다. 미래 인재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 신청서 다운로드 : FIAT웹사이트(www.fiat.org)
● 마감 : 5월27일 * 문의 : fiat@fiat.org ☎(714)702-9830
● 봉사인정프로그램 : GPA3.0 이상 9~11학년 봉사자
● 본당신부 및 고등부 사목자의 추천서 제출

- ◆ 후보 광고에 협찬해주신 후원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매주 발행되는 백삼위 후보 광고후원금을 보내주시는 후원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교회 재정에 큰 도움을 주시는 이들 업소를 교우들께서는 가능한한 애용하시기 바랍니다.

- ◆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 5월20일(주일) : 체육대회(각 구역별로 점심 준비합니다.)
 - 5월27일(주일) : 친교자리 없습니다.(메모리얼데이 연휴)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장미순 김옥보 박선희 안태갑 이귀분 정혜영 최이원	김교복 김윤진 박영룡 엄세중 이미경 조인순 홍광선	김대우 김재영 박정희 오세원 이민상 노혜숙 한길선례	김병조 김정엽 성낙호 오신재 이용식 최상만 영희가보라	김선제 김현숙 송영미 유영균 이우성 최수현 송마이클	김영길 민형기 신경훈 윤희동 이일길 최의수 송마이클
합계 : \$3,895						
미사헌금 : \$2,544						
성전헌금	장미순 김옥보 박정희 유영균 조인순 한길선례	김교복 김윤진 성낙호 윤희동 노혜숙 영희가보라	김대우 김정엽 신경훈 이민상 이용식 최의수 송마이클	김병조 김현숙 안태갑 이용식 이우성 최이원 홍광선	김선제 박선희 엄세중 이우성 정혜영 최이원 홍광선	김영길 박영룡 오세원 정혜영 홍광선
합계 : \$2,625						
감사헌금 : 박이레네						
주보광고후원 : \$500						

공지사항

주일학교/한국학교 소식

◆ 20일(체육대회) 주일학교/한국학교 수업 없습니다.

학생미사는 오전 10시 어른미사와 함께 봉헌합니다.

◆ 첫영성체 예식

- 시간 : 6월 3일(주일) 오전 11시 미사중
- 대상 : 2학년 학생 및 첫영성체 교리 학생
- 문의 : 이진원 루시아 초등부 교무주임 ☎(310)780-8895

◆ 고등부 신앙대회 (Steubenville)에 입을 T-셔츠 공모전

- 대상 : 관심있는 고등학생(8-12학년)
- 마감 : 6월10일(주일)로 연장
- 주제 : The Eighth Day(Isaiah 43,1)
- 당선작 : 상품 제공
- 제출 : stephanieyoonpark@gmail.com
- 디자인문의 : 박윤희 스테파니아 ☎(310)613-9116

◆ 주일학교 서머캠프

- 일시 : 6월29일(금)~7월1일(주일)
- 장소 : 테미칼라 꽃동네 피정센터
- 대상 : 3학년~12학년(선착순 60명 접수, 장소관계상)
- 참가비 : \$50(마감 5월27일/6월1일부터 \$70, no refund)
- 문의 : 박윤희 스테파니아 행사코디 ☎(310)613-9116

◆ 2012-2013학년도 주일학교 등록접수

- 일시 : 여름방학전까지(6월30일 마감)
- 대상 : 유치원~12학년
- 등록비 : 첫째자녀 \$100, 둘째 \$80, 셋째 \$60, 넷째 무료
- 자모회비 : \$40(가정당)

남가주 소식

◆ 본당교우 김윤진 개인전 'The Catalina 2012'

- 일시 : 5월 30일(수)까지
- 장소 : lee & lee 갤러리(3130 윌셔블러바드 #502, LA)
- 문의 : ☎(213)365-8285

◆ 제5회 2012 FIAT(피아트) 리더십 트레이닝 피정

- 일시 : 6월21일(목)~24일(주일)
- 장소 : 성토마스한인천주교회, 애나하임, CA
- 참가비 : 무료(자세한 내용은 신청서 참조)
- 참가대상 : 주일학교교장/교사, 중고등부 사목담당자, 청년사목담당자, 학생미사 음악봉사자 등
- 피정프로그램 : 기본/실질적 사목능력 교육, 영성교육
- 신청서 다운로드 : www.fiat.org

◆ 송봉모 토마스 신부의 성경대학 2학기 CD 판매 안내

- 내용 : 가톨릭 예수회 성경대학 2학기 과정 강의내용 수록
공관복음의 학문적, 영성적 읽기- 예수님을 잘 따르기위하여
- 금액 : 1세트당 \$20
- 문의 : 성 아그네스 한인천주교회 ☎(323)731-4433
고영희 데레사 ☎(213)249-3603

소공동체 5월 반모임 안내

소공동체 부 장		박해경 레나타 (310)808-5005	
차 장		장정진 페로니카 김명제 아가다	
차 장		박은혜 클라우디아 이희경 크리스티나	
구역/장	반	반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유현자 안나 320-3697	1	변해경 올리아나 920-5153	5월20일 본당 체육대회로 대체
	2	김찬구 요한 701-6343	5월20일 본당 체육대회로 대체
	3	문지숙 엘리사벳 854-9407	문지숙 엘리사벳 854-9407
토런스 서 장정진 페로니카 713-7783	1	이진향 아네스 989-0366	5월20일 본당 체육대회로 대체
	2	이크리스 아가토 619-7763	5월20일 본당 체육대회로 대체
	3	권영옥 루시아 713-7779	5월20일 본당 체육대회로 대체
토런스 남 이희경 크리스티나 818-6903	1	최경숙 수산나 320-0855	5월20일 본당 체육대회로 대체
	2	박정람 마르시아 634-6923	김씨니 클라라 612-8840 5/9(수) 오전 10시30분
	3	김희연 루시아 213-458-3356	5월20일 본당 체육대회로 대체
토런스 북 최미열 클라라 895-8624	1	조화숙 안젤라 213-272-8393	5월20일 본당 체육대회로 대체
	2	1반과 같음	1반과 같음
하버 카슨 윤남열 세라피나 365-7871	1/2	유명련 마리아 985-2882	김재영 바오로 834-8006 5/12(토) 오후 7시
	3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5월20일 본당 체육대회로 대체
P. V. 김명제 아가다 866-8778	1	남경희 베네딕다 384-3289	5월20일 본당 체육대회로 대체
	2	금유미 크레센시아 482-9108	5월20일 본당 체육대회로 대체
	3	박은혜 클라우디아 377-7063	5월20일 본당 체육대회로 대체
	4	강숙경 도미니카 541-0767	5월20일 본당 체육대회로 대체

이번 주 단체 모임

본당 체육대회	오전 11시
---------	--------

다음주 단체모임

사목회	오후 1시
-----	-------

새 서울 대교구장에 염수정 주교

- 한국 천주교 서울대교구 -

교황 베네딕도 16세는 지난 10일 오후 7시(로마시각 낮 12시), 천주교 서울대교구의 새 교구장으로 현 서울대교구 총대리 염수정 주교(사진)를 임명하셨습니다. 서울대교구는 교황청 발표시각과 같은



10일 오후 7시 서울 명동 교구청 주교관에서 가진 공식 임명 발표를 통해 새 교구장의 탄생을 알렸습니다.

염수정 주교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느님과 교황님의 뜻에 순명한다. 부족한 제가 막중한 직책을 맡게 되어 송구스럽다.”고 전하고 “항상 교구 사제단과 신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동안 우리 서울대교구를 이끌어 주신 정 추기경님의 사목방향인 생명과 선교에 더 많은 사목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교회와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서울대교구장이 될 수 있도록 교구 사제단의 협조와 수도자, 신자분들의 기도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고 말했습니다. 새 교구장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자리에 함께 한 정진석 추기경은 “훌륭한 교구장님을 보내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며 “새로 임명되신 염수정 주교님께서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며 진리에 충실하셔서 서울대교구를 더욱 발전시키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고 축하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생명주일 담화문 요약

응급(사후)피임약은 낙태약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올해 우리는 제2회 생명 주일(오월 첫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생명주일은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고, 임신되는 순간부터 자연사에 이르기까지 인간 생명을 일관되게 존중하고 보호하는 사회가 되기를 지향하며 한국 주교회의가 제정한 주일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응급(사후)피임약’ 사용이 널리 확산되고 있습니다. 응급피임약의 약효 자체가 반생명적이고 폭력적임에도 이미 음성적으로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응급피임약을 단순한 사후 일반피임약 정도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응급피임약은 일반피임약보다 호르몬 함량이 10~30배 더 많아서

구토, 복통, 두통 등 일시적인 부작용 이외에도 생리과다, 이상 출혈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미혼여성들이 편리하다는 이유로 응급피임약을 습관적으로 복용할 경우 생리 불순, 불임 등의 부작용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응급피임약은 남녀관계 후 72시간 이내에 복용하여 수정된 인간 생명체인 배아의 착상을 막기 때문에 실상 이 약은 ‘조기 낙태’ 또는 ‘화학적 낙태’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2000년에 ‘교황청 생명학술원’은 응급피임약을 배포하고 처방하고 복용하는 행위는 낙태 시술과 마찬가지로 윤리적인 악행임을 명백히 하였습니다. 2001년, 정부는 응급피임약 시판을 허가하면서 의사의 처방 없이는 응급피임약이 판매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10여년이 지난 지금, 응급피임약 대부분은 일반 약국에서 의사 처방전 없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대한약사회와 일부 시민 단체는 낙태율을 줄인다는 명분으로 응급피임약을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교육계는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기본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정부는 응급피임약을 전문의약품에서 의사의 처방이 필요 없는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하는 논의를 중단하고, 응급피임약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교육계는 청소년들에게 인성교육으로서 성·생명 교육에 심혈을 기울여야 합니다. 약사회나 제약회사도 경제적 이득에 앞서 먼저 청소년들의 건강과 건전한 성윤리를 걱정해 주기를 바랍니다.

부모들은 성은 사랑의 길을 지나서 생명을 지향할 때 가장 아름다울 수 있음을 삶으로써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성·사랑·생명이 연속체적 하나임을 체득시켜야 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인공피임은 윤리적으로 부당하며, 낙태는 인간 생명을 침해하는 부도덕한 악행입니다. 응급피임약 역시 인간 생명을 침해하는 낙태약입니다. 우리가 눈에 드러난 학원 폭력을 용납할 수 없듯이, 낙태나 응급피임약처럼 눈에 드러나지 않은 폭력도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생명을 존중하고 올바른 성을 추구하는 것이 바른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이 길을 가야 합니다. 참된 행복은 바로 생명의 길에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천주교 생명윤리위원회 위원장 장봉훈 주교